10월항쟁 80주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76주기

추념식

2026년 10월 1일(목) 11:00

장소 : 10월항쟁 위령탑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28

주최 10월항쟁80주년행사위원회

후원 행정안전부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본 행사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후원행사로서 기부금(후원금)을 모집하거나 수령하지 않습니다.

식순

식전행사 10:00~10:50	10월항쟁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6대 종단 합동위령제** 「참된 평화를 향한 기억, 되새김과 해원」 **불교 '천도제'** 홍진스님 (조계종 동화사 사회국장), 김진기, 김태국, 김종윤, 김상도, 조규보, 정국헌, 신팔수 **유교 '헌작례, 축문낭독'** 헌관 정장현, 대축 정재철, 집례 양구봉 (대구향교 의전국장), 집사 이재동, 이종욱 **원불교 '영가천도문'** 진선원, 오덕진, 권정도 교무 (대구경북교구 사무국장) 외 **천주교 '위령기도, 분향'** 홍창익 신부 (대구대교구청 건축본부장) **개신교 '추모기도'** 황명열 목사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대표)
추념식	사회 : **김혜숙** (대구MBC 아나운서)
11:00~12:00	**10월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영령에 대한 묵념**
	개식
	10월항쟁 80주년 미니다큐 <1946 항쟁의 꿈, 2026 다시 묻다>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영령에 대한 묵념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 인삿말 : 채영희 (10월항쟁 유족회 초대회장,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 공동대표)
	이재명 대통령 추도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대독 **조정식 국회의장 추도사** 사회자 대독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추도사** 사회자 대독
	추모공연 춤과 노래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춤]** 난 춤을 출 테니, 넌 빛이 되어줘_안문규, 문경빈 **[노래]** 그대 _ 노래,기타 : 예재창/장구 : 석은희/대금 : 김미애/바순 : 배지오
	송상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추도사 :** 김귀옥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대독 **추경호 대구시장 추도사** 김동우 (대구광역시 행정국장) 대독
	추모시 낭독 '새 나라 희망가' 이정연 (시인, 10월문학회 회원) 낭독 : 이수진 (시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폐식
	참가자 헌화 및 참배

행사 후 점심식사 장소 안내
거담목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11-1 (10월항쟁 위령탑에서 가창방면 자동차 이동 1분거리)

1946 - 2026

1946.09.23~09.30 대구 철도노동자를 시작으로 각 산업 노동자들이 쌀 배급, 임금 인상, 해고 반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참여

1946.10.01 대구역 인근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경찰 발포로 희생자 발생. 생존권과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10월항쟁 시작

1946.10.02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자의 시신을 앞세워 대규모 항의시위 전개. 미군정이 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진압에 나섬

1946.10~12 경북을 비롯한 남한 여러 지역으로 항쟁 확산.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항쟁 참여자들 투옥

1949 국민보도연맹 조직. 10월항쟁 관련자들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가입·관리 대상이 됨

1950 한국전쟁 발발 전후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등이 가창골·경산 코발트광산·영천 아작골 등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

1960.04 이후 4·19혁명 이후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요구. 국회 조사와 지역 유족회 결성 이어짐

1960.06.15 경북지구피학살자유족회 결성. 대구·경북 유족들이 학살 진상규명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직적 활동에 나섬

1960.07.28 경북지역 피학살자 합동위령제 거행. 유족들이 유해 수습과 합동묘·추모비 조성,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

1960.10.20 전국피학살자유족회 결성. 가해자 처벌, 피해 사실 규명, 유족 사찰 중지, 호적 정리, 형사보상, 위령사업을 요구

1960~1961 대구·경북 유족들이 진상조사와 청원, 기관지 『돌꽃』 발간 등 활동 전개. 진실규명과 희생자·유족의 권리 회복을 요구

1961.05.16 이후 군사쿠데타 이후 유족회 간부들이 검거·수감되고 유족회가 강제 해산. 이원식은 사형을 선고받은 뒤 감형, 유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이 중단

1999~2000 노근리 사건 보도 이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 확산. 경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해 피해 조사와 진상규명·명예회복 요구

2000.7.10. '양민학살 피학살자 대구유족회' 결성. 대구지역 유족들의 조직적 진상규명 활동 재개

2003.10.1. 대한정치학회, '대구 10·1사건의 재조명: 전개과정과 영향' 학술대회 개최

20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과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으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 통로 마련

2005 대구MBC가 '1946년 10월, 항쟁의 도시' 등 대구현대사 재조명 특집을 방송

200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피해 유가족들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관련 조사 진행

2006.09~11 지역 16개 단체가 10월항쟁 60주년 행사위원회를 구성. 추모제·거리순례·역사탐방과 '1946년 10월, 역사와 진실' 학술대회 등 추진

2006~2025 10월항쟁유족회, 대구경북시민사회단체 주최로 '10월항쟁 진실규명,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위한 대구경북시도민대회' 개최

2007 10월항쟁 61주년 추모제 개최

200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피해자 합동위령제와 10월항쟁 62주년 추모제 개최. 10월항쟁유족회 준비위원회 결성

2009 진실화해위원회가 대구지역 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 10월항쟁 63주년 추모제 개최

2010 10월항쟁유족회 결성. '10월항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실규명, 희생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활동 전개

2010 진실화해위원회,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 위령·추모사업 지

원, 역사기록 수정 등을 권고

2010 가창골 이병옥 선생 위령제, 진실규명 설명회·고유제 개최

2010 다큐멘터리 '46년, 10월의 기억' 제작 및 미대사관 진실규명 요구 서한 전달

2010 유족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10월항쟁 64주년 희생자 추모제 개최

2011 채영희가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이성번이 대변인으로 선임. 대구·경북 유족회 결성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운동 추진

2011 동성로에서 한국전쟁유족회 특별법 쟁취 범국민 결의대회 개최

2011 대구시가 희생자 위령제 예산 지원 시작

2012 10월항쟁 66주기 추모제와 세미나를 통해 역사적 복원과 진실규명 과제 논의

2013 '1946년 10월항쟁, 대구와 전국' 학술대회 개최. 제1회 10월문학회 창립

2014 10월항쟁 68주기 위령제에 대구시장이 처음으로 추모사를 보냄

2014 유족회가 가창골 학살터 증언과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유해 발굴, 위령비 건립과 추모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

2015 유족회가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0월항쟁특별위원회를 구성

2016.07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결

2016.07.31. 10월항쟁 70주기 민간인 희생자·가창골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

2016.08.01.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6.10.01. 9월 총파업·10월항쟁 70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대구 도심에서 개최

2016.09.26. 김상숙의 『10월 항쟁: 1946년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출간

2017.12.15. 민주연구단체협의회, '10월항쟁, 그리고 민주주의' 심포지엄 개최

2018~2020 대구시, 가창면 용계리 일대에 위령탑 건립 추진

2020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2020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2022.10.1. 10월항쟁 76주기·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72주기 합동위령제 개최

2023.05.24~06.13. 가창골 유해 발굴 개토제와 발굴조사 진행. 유해를 찾지 못한 채 조사를 마치고 발굴 책임자와 간담회 개최

2023.10.06. 10월항쟁 77주기·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73주기 합동위령제 개최. 제주4·3 관련 단체·합창단이 참배하고 정신계승 행사 진행

2025.09.19. '10월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정신계승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총회 개최

2025.09.27. 옛 대구역 인근 대구콘서트하우스 앞에 '10월항쟁 발상지' 표지판 설치·제막

2025.09.30. 10월항쟁 79주년 대구경북시도민대회와 전야예술제를 대구역 앞 광장에서 개최

2025.10.01. 가창 위령탑에서 10월항쟁 79주기·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75주기 합동위령제 개최

2026.03.11. 10월항쟁시민연대 정기총회 및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 결성회의 개최

2026.05 노동절 대구대회와 광주·대구 5·18 행사, 최저임금한마당에서 80주년 홍보 및 소책자 배포. 국회부의장과 시민사회 간담회 참여

2026.8.21. 대구사학회 학술대회 '로컬의 기억에서 인권의 역사로 : 1946년 '10월 항쟁'의 학문적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 개최

2026.09.28. 대구콘서트하우스 앞 발상지 안내판에서 10월항쟁 80주년 사업주간 선포 기자회견

2026.10.01. 가창 위령탑에서 6대 종단 합동위령제와 10월항쟁 80주년 추념식 개최

2026.10.01~10.06 (예정) 진실규명·명예회복을 위한 학술대회·국회 토론회,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와 헌정콘서트

10월항쟁 80주년에 부쳐...

오늘은 10월항쟁이 일어난지 80주년입니다.

흐르는 세월은 누구도 막지 못해 80년이 흘렀습니다. 1946년 10월 1일 일어난 첫 민중항쟁으로서 그날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오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80주년 추념식을 시작으로 묻혀 있던 10월항쟁의 고귀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새롭게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한 100여개의 단체가 손잡고 10월항쟁 80주년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잊혀지지 않고 10월항쟁의 정신을 이야기해 주신 모든 문학인들, 예술인들, 시민 운동가 분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항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위령탑을 세워주신 대구광역시 시청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10월항쟁 80주년 추념식에 참여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10월항쟁의 딸 **채 영 희** 올림

기억은 진실을 향하고,
진실은 평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1946년 10월,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구에서 시작된 10월항쟁은 식량과 생존의 위기 속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요구했던 민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10월항쟁 80주년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76주기를 맞았습니다. 8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항쟁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희생자들의 이름과 삶이 온전히 기록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유가족들은 긴 세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0월항쟁 8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추모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억은 항쟁의 진실을 향해야 하고, 진실은 명예회복과 정의로 이어져야 하며, 그 과정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평화의 미래로 이어져야 합니다.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구10월항쟁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된 민간인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실제 희생자는 조사된 규모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위령·추모사업과 기록의 정정, 역사적 진실의 등재, 평화·인권교육 등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첫째, 10월항쟁의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아직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국가의 조사와 기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미신청 희생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80년의 세월 동안 국가의 공식 기록과 사회적 기억에서 지워지거나 왜곡되어 온 희생자들의 삶을 역사 속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빨갱이라는 낙인을 걷고 민중의 생존과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떨쳐 일어선 애국자들이였음을 후대에 알려야 합니다. 해방 직후부터 벌어졌던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하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범정부 차원의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10월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진실규명만으로는 80년 동안 누적된 피해와 유족의 고통을 온전히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추모사업과 기념사업, 기록의 정비와 역사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넷째, 10월항쟁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대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교육으로 계승해야 합니다.

10월항쟁을 과거의 비극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어떤 경우에도 국가폭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역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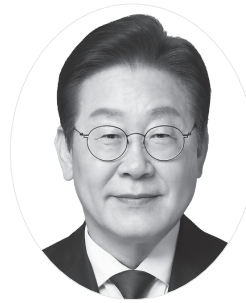
오늘 우리는 80년 전 10월항쟁과 한국전쟁전후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다짐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민주주의의 역사로 계승하겠습니다.

10월항쟁 80주년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추념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과제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10월항쟁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희생자들의 이름이 역사에 정당하게 기록되며, 유가족의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그날까지 우리 10월항쟁80주년 행사위원회는 유가족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10월항쟁과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모든 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10월 1일

10월항쟁80주년행사위원회 상임대표 **임 성 종**



대구 10월 항쟁 80주년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76주기 추념식을 맞이하는 심정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먼저, 희생자 여러분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오랜 세월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은 다르면서도 닮았습니다. 해방 직후 극심한 혼란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분노와 폭력은 서로를 향했고 무고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무원 또한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만큼이나 긴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은 이 어두운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비통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마음 놓고 소리 내어 울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의 지난 세월입니다. 현대사의 첨예한 이념 대립 속에 불이익과 낙인을 피해 침묵하고 또 두려워해야 했던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진실규명을 통해 비극의 진실이 일부 밝혀졌지만, 세대를 이은 침묵과 슬픔은 충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날의 아픔을 바로 마주하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가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미래세대가 이 역사를 편견과 증오의 언어가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언어로 기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대통령 **이 재 명**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조정식입니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의 영령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랜 세월 아픔을 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추념식을 위해 애써주신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46년 10월 대구에서 시작된 10월항쟁과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아픈 현대사입니다.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가의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2026년은 10월항쟁 80주년을 맞는 해이자, 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해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해에 힘차게 출발하는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가 다양한 학술ㆍ문화ㆍ교육ㆍ대중사업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실현하고, 10월항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구에는 이미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책임 있게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되찾으며 유가족을 지원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기억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입니다. 오늘의 추모가 오랜 상처를 보듬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도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의 영령 앞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거듭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의장 **조 정 식**

10월항쟁 80주년을 맞아 항쟁의 의의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10월항쟁으로 희생된 분들께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념식을 준비하신 10월항쟁80주년행사위원회 관계자분들과 추모의 뜻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항쟁은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미군정의 실정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대규모 민중 항쟁입니다. 이날의 항쟁은 2달간 이어지며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강경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오래도록 잊혀왔던 이 아픈 역사는 7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조명되며 '폭동'에서 '항쟁'으로 바로잡혔고, 올해 8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항쟁의 의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비슷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모식이 10월항쟁의 역사를 반추하고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10월항쟁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가보훈부 장관 **권 오 을**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추념식은 80년 전 대구10월항쟁으로 희생되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항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선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대구10월항쟁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신 채영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도 진실화해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46년 10월 1일, 대구10월항쟁이 발생했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실시한 식량정책 등으로 인해 미군정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1946년 9월 총파업 이후 1946년 10월, 각지에서 시민들의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대구역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분노한 민중의 항쟁은 대구 경북,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0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10월항쟁은 그 진압 과정에서 대구 경북에서만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체포된 사람만도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으로, 또는 형무소 재소자로 희생되었습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실규명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령 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2기 위원회에서는 대구지역 사건 52건,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42건을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경북지역의 상당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했고, 국가 사과와 희생자에 대한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오랜시간 숨죽이며 살아왔던 유족들은 '10월항쟁 유족회'를 결성하여 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분들의 오랜 노력이 대구시 의회를 움직여,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령탑 건립, 10월항쟁 발상지 표지석 설치 등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이제 유족들은 대구10월항쟁을 널리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3기 위원회는 과거 1, 2기의 성과를 토대로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못한 억울한 희생을 더 밝혀내고, 명예회복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또 관련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추모는 슬픔을 되새기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고, 다시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전쟁 전후시기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평안을 빌며, 오늘의 추모제가 유가족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 상 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추경호입니다.

오늘 10월 항쟁 80주년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76주기를 맞아, 억울하게 희생되신 수많은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10월 항쟁은 해방 직후의 극심한 혼란과 생존의 위기 속에서 더 나은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열망했던 우리 이웃과 시민들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으로 비극은 이어졌고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오랜 세월 억울함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사회적 편견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지난 비극을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에도 함께해야 합니다. 역사의 상처를 함께 보듬고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령들께는 영원한 안식을, 유가족 여러분께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장 **추 경 호**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입니다.

대구 10월 항쟁이 일어난 지 80년이 흘렀습니다. 변함없이 항쟁을 기억하고 추모해주시는 '10월 항쟁 시민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월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금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찾아온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었습니다. 농업정책의 실패로 인한 쌀값 폭등과 여전히 위세등등한 친일 세력들의 탄압으로 민생은 나날이 피폐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맞서 항쟁에 나섰지만 무자비하게 진압당했습니다. 불의에 항거해 참여한 시민들과 가족들이 무차별적으로 '빨갱이'로 몰렸던 시대적 아픔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평범한 시민들의 함성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강령에 새긴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10월 항쟁 역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 10월 항쟁에 관한 명예 회복과 추모 확대, 유족 지원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한 대구 10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며, 80년의 세월 동안 고통받아온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 10. 1.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 민 석**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든 번째 시월을 맞았습니다. 국가폭력의 칼날 앞에 억울하게 스러져간 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입니다.

1946년 10월, 해방의 벅찬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구의 노동자와 학생, 평범한 시민들은 차가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혼란 속에서 "쌀을 달라,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 절박한 생존의 호소에 돌려준 것은 무자비한 총탄과 폭력이었습니다. 그 비극은 대구와 경북 곳곳으로 번져나갔고, 한국전쟁 전후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고통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수십 년 세월 동안 '빨갱이 가족'이라는 가혹한 낙인과 감시, 강요된 침묵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피붙이를 잃은 슬픔조차 마음 놓고 소리 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을 말할 권리조차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당시 경찰과 군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적법 절차 없이 학살당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차가운 땅속에 묻혀 이름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가 셀 수 없이 많고, 가족의 마지막 모습조차 알지 못한 채 한을 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계십니다. 여든 해가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으며,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좌와 우, 진영의 논리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유족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만 겨우 귀 기울여주는 잔인한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내며, 온전한 사과와 배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그저 "기억하겠다"는 다짐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진실이 올바르게 기록되고, 그 기록이 국가의 책임이 되며, 끝내는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완성해 내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추모의 자리를 지켜주신 10월항쟁 80주년 행사위원회와 10월항쟁 유족회 및 시민연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긴 세월 통한의 눈물 속에서도 진실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위로와 존경을 전합니다. 희생되신 모든 분의 영면을 빌며, 영령들의 못다 이룬 염원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단단한 뿌리로 온전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조국혁신당 대표 **신 장 식**

80년의 왜곡을 끝내고,
10월 항쟁의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80년입니다. 대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대구 10월 항쟁을 기억하고 바로 새기는 길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구는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노동자, 농민이 자랑스러움이 새겨져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10월항쟁의 진실은 오랫동안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침묵과 왜곡의 고통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유가족들이 겪어온 오랜 아픔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 지워진 이름을 다시 역사에 새기는 것,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80주년을 맞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보당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80년 전 대구에서 울려 퍼졌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희생자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긴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의 싸움을 기억하겠습니다.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으며,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후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국가폭력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와 인권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겠습니다.

10월항쟁 80주년이 침묵과 왜곡의 역사를 넘어 진실과 정의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진보당 대표 **김 종 훈**

추도사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대구시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80년 전 대구역 광장에 모인 노동자와 시민들이 외친 것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쌀을 달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라” “완장 차고 돌아온 일제 부역자들을 처단하자” 였습니다. 또한 “우리 손으로 민주적인 나라를 세우자”였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와 민주주의는 결코 다르지 않았기에, 참다 못한 시민들은 어깨를 걸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경찰의 총탄과 해방 이후 최초의 계엄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보도연맹에 이름이 올랐다가, 전쟁이 터지자 가창골과 경산 코발트광산 또는 칠곡 신동 재로 끌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죽이고 그 죽음에 ‘폭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연좌제의 족쇄가 채워져 수십 년 동안 울음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8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유족회에서 가장 젊은 분이 일흔일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0월 항쟁에 관련된 부모 얼굴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가 지금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유가족의 호소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대구·경북 민간인 희생사건 185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이 통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유해발굴 전담 부서와 유전자 검사가 명시되었고, 자료제출 요구권이 강화되었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과 수사의뢰권도 보장되었습니다. 유족의 의견 제출권이 보장되었고, 위령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도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2기 위원회는 경산 코발트광산 유족들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도 예산이 없어 검사를 미뤘고, 가창면 상원리에 대한 유해발굴은 삽 한 번 뜨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권한 뿐 아니라 충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약속드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용혜인 의원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가창골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조사기간 만료로 또다시 억울하게 멈춰서는 사건이 없도록, 진실규명 결정이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항쟁 특별법 제정과 국가기념일 지정에도 기본소득당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80년 전 해방 이후 최초의 계엄에 맞섰던 대구의 시민들이 있었기에, 재작년 겨울 우리는 장갑차 앞을 맨손으로 막아설 수 있었습니다.

10월항쟁은 참된 독립과 민중이 주인된 나라를 꿈꾼 사람들의 역사요,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를 향한 첫 페이지입니다. 그 첫 페이지가 여전히 ‘폭동’이라는 낙인과 빈칸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름 없이 묻힌 한 분 한 분이 이름을 되찾고, 유해 한 조각이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저와 기본소득당은 유가족 곁에 서 있겠습니다. 진실에는 시효가 없고, 기억에는 끝이 없습니다.

80년 전 쌀과 자유를 외치다 스러져간 모든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너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

10월항쟁 80주년을 맞아 국가폭력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영전에 깊이 머리 숙입니다. 긴 세월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워 오신 유가족과 10월 항쟁 시민연대에도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80년 전 오늘을 떠올리며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용태. 대구역에서 일하던 철도노동자였습니다. 1946년 10월 1일,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경찰의 발포로 김용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은 희생자의 시신을 들것에 메고 거리로 나섰고, 노동자와 학생, 시민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 노동자의 죽음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0월 항쟁을 죽음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리에는 살아가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터의 권리를 요구했고, 굶주린 시민들은 "쌀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삶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10월항쟁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투표할 권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요구할 권리,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권리, 누구도 국가의 폭력 앞에서 함부로 목숨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까지 민주주의입니다. 80년 전 대구에서 "쌀을 달라"는 외침은 가장 절박한 생존의 요구인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요구였습니다.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80년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되찾지 못한 희생자가 있고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유족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민주주의가 그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 제대로 서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김용태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해 아직 불리지 못한 수많은 이름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80년 전 거리에서 사람들이 요구했던 삶의 권리가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싸우겠습니다.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존재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10월 항쟁을 기억하며 만들어야 할 내일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정의당 대표 **양 경 규**

十月花(시월에 피는 꽃)

올해도 시월이 오면 사방천지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어김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우리를 맞습니다.
그러나 80년 전 그날, 뙤약볕 아래 피었던 꽃들도
정작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가창골 용계리 계곡을 흘렀던 핏물은 피눈물이 되어 오늘도 무심히 흐르건만
가슴속 응어리진 十月花는 폐부를 쥐어뜯는 아픔에 멍자국만 남았습니다.
아직도'사건'이니,'폭동'이니 진실인양 호도하며 읊어대는 무지렁이들의
비웃음은'항쟁'이라는 깃발 아래 영원히 사라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울어야 하고, 언제까지 가슴앓이를 하게 둘 것인지를 답하라!
원망과 한탄이 사치인양 몇푼의 돈을 쥐어 주며 달래면 울음도 그쳐야 하는가!
위령비 아래 새겨진 우리네 피붙이의 이름 석자에 만족해야만 하는가 말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차마 받아 들일 수 없는 모멸감인 것을...

호도된 역사의 소용돌이속, 아무렇게나 쑤셔지고 구겨져버린 차디찬 주검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의 말한마디가 그렇게나 어렵더란 말인가!
내 부모친척의 시신조차 수습하진 못한 천인공노할 불효를 너희가 저질렀음에도
어째서 그 죄가 고스란히 내 몫이 되어야만 한단 말인가!

생전의 내 부모보다 나이가 들어 이제는 북망산천으로 갈 날이 점점 다가오니
왜 이다지도 서글픈지 너네가 과연 내 마음을 헤아리기나 할까...
용계천 둔덕에 외롭게 핀 하얀 구철초는 시린 가슴에 소리조차 내어 울수 없는
슬픔인 것을 아는지 바람결에 꽃잎을 일렁이며 달래 주건만 그래도 서럽구나...

이제는 울지 않으련다...
기억조차 까마득한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그리지 않으련다...
엄마의 한맺힌 울음도 이제는 흘려 보내련다...
十月花야 약속해 주렴...
내가 죽거던 꼭 아버지 곁으로 데려다 준다고....

2026년 10월 1일

부산유족회 회장, 부산불교문화원장 **김 광 호**

새 나라 희망가

지난여름 불볕더위 피해
우주선처럼 각자 틀어박혀 지내다
선선한 바람이 불자 밖으로 나온 날처럼
해방의 날도 그랬으리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나 보고* 싶었던 이들
이 땅이 우리 땅인가 조심스레 새로 발을 내딛었으리
어디에나 들리는 내 나라말로 반가이 인사했으리
이보게, 안녕하신가
아침 잡수셨으예?
새 나라 이야기 내 나라 이야기로 이야기꽃 만발했으리
신바람 나 야윈 어깨 들썩였으리

그러나,
희망이 물거품 되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인가!

해방 이듬해 10월 1일,
대구공회당 앞에 모인 사람들
일터와 쌀을 달라, 친일 경찰 물러가라 외칠 때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 희망을 쏘았다, 으악!
4년 후 전쟁이 나자 더욱 횡포해진 총알
포승줄로 동여맨 희망들 쓰리쿼터에 싣고 가
이 골짝 저 골짝 골짝마다 파묻고
폐광산 굴을 열어 밀어뜨리고
바다에 싣고 나가 빠트리고

썰물 때 총을 쏘아 밀물에 쓸려 보내고
가창댐 거대한 물덩이로 눌러 놓고
빨갱이란 붉은 테이프 칭칭 감아 봉해 버렸지 않은가

80년 만에 처음 열리는 10월항쟁 추념식 앞줄에
1950년 이전에 태어나 적어도 일흔여섯이 넘었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고 바뀌었지만
대통령이란 게 있지도 않았던 시절
등 따시고 배부른 나라 억울한 사람 없는 나라
가슴 벅찬 내 나라 좋은 나라 건설하러 나선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쉬쉬하고 숨죽이며 살아온 불가촉천민들을 보시오
그 여름 이 골짝에서 총 맞고 가실 때
어린 나를 두고 어찌 눈 감으셨을지
간신히 진실 규명받고 보상금을 받아도
젊은 아비 핏값이라 십 원짜리 하나
함부로 쓰지 못하는 저 백발의 유족들
애국의 이름으로 총질을 해댄 서북청년단처럼
큰북 작은북을 앞세우고 대구 시내 중앙대로를 활보하며
삐이 삐이이이 쿵짜라 쿵짜라라라
울려 퍼지는 몰상식의 나팔소리 북소리
오늘 밤에도 간담이 서늘해질 이곳이지만

봄의 싹도 지난가을 열매의 씨앗이듯
그 가을에 끌려간 사람 내가 다 보았노라고
붉은 감 조롱조롱 매달고 마당 가를 서성이는 감나무와
그 여름 파묻힌 곳 우린 다 알고 있노라며
삼천리 언덕마다 하얗게 새 꽃 피우는 구절초

여리고 순하지만 풀씨처럼 질긴 게 희망이라
경산 코발트 광산 수직굴 아래 눈 못 감은 유해는
76년 만에 드디어 푸른 하늘을 보았고
때와 곳을 몰라 사망신고도 제때 하지 못한 영령들
꽃상여 타고 하늘길 가는 가을이 왔나니

여기 모인 동채꾼들아,
차전놀이는 끝나지 않았다
80년간 뒤바뀐 자리,
상식의 자릴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적반하장의 몰상식들 밀어내고
10월항쟁 푸른 꿈, 희망의 첫 단추
바로 채우러 가자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이정연

경북 영천 출생, 2017년 ≪사람의 문학≫, 시집 『유리구슬은 썩지 않는다』

10월항쟁80주년행사위원회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사)대구여성의전화 / (사)대구여성회 / (사)생명평화아시아 / (사)전태일의친구들 /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 (사)한국민예총대구지회 / (사)한국민족춤협회대구지회 / (재)형명재단 / 10월문학회 / 강창덕선생추모사업회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구경북지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지부 /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 경북대학교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 경산민주단체협의회 / 경일대학교민주동우회 / 경주겨레하나 /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 공공연대노동조합대구본부 / 국민주권사회대개혁전국시국회의 / 기본소득당대구시당 / 남부권경제연구소 / 너른비문화행동 / 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 / 대구가톨릭대학교민주동문회 / 대구경북겨레하나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자주연합(준) /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 대구경북작가회의 / 대구경북지역대학민주동문(우)회협의회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 /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 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여성광장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구촛불행동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문회 / 대구환경운동연합 / 더나은대구교육포럼 /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 무지개인권연대 / 민족문제연구소구미지역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역위원회 /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 민주시민교육공동체모D / 민주평등사회를위한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 보건의료노조대구경북지역본부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서비스연맹대경본부 / 세월호참사를기억하고실천하는대구416연대 /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 시월항쟁80주년예술제추진위원회 / 여정남기념사업회 /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 영천겨레하나 / 우리복지시민연합 / 인권실천시민행동 / 일제잔재청산대구시민모임 / 의료연대본부대구지역지부 / 전국건설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대구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대구지역지회 /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 전국사무금융노조협동조합업종본부대경본부 / 전국여성노조대구지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북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구지부 / 정의당대구시당 / 조국혁신당대구시당 / 지구촌정신문화포럼 / 진보당경북도당 / 진보당대구시당 / 평신도교회'예담'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평화통일실천연대 / 포항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경북대분회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영남대분회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대구대분회 / 현대사공부모임"직시회"